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 부적격 후보 논란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 도시공사가 세번째 사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응모자를 둘러싸고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차기 사장 3차 공모 결과 전직 교수와 기업 임원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 충청권 지방공기업 전직 사장 등 모두 5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지방공기업 사장을 지낸 A씨에 대해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의 경우 지방공기업 사장 시절 특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경고

세번째 공모에 총 5명 신청서 제출

지방공기업 사장 출신 '부적절 인사'

처분을 받아 사퇴론이 불거졌고, "남은 임기 동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지 20일만에 광주도시공사에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A씨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선정한 '박근혜 정부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에 포함된 인사로, 병가 기간과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

모기간과 교묘히 겹쳐 도덕성 논란마저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응모자 B씨는 앞선 1차 공모 당시 지원했다가 탈락하고도 다시 재응모한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면접심사를 거쳐 최소 2명을 시장에게 복수추천하게 된다. 시장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지명하면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해임 또는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광주도시공사는 2월10일 1차, 3월14일 2차 공모에 나섰으나, '셀프 추천' 등으로 1차 공모가 무산되고 2차 공모도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하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결국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지원이 일괄사입하면서 임추위가 재구성됐다.

신봉우 기자

스페인서 롤러코스터 충돌사고 33명 부상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테마파크에서 롤러코스터 2대가 충돌, 어린이 6명을 비롯해 3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스페인 당국(Emergency services)은 이날 마드리드에 있는 '놀이동산(Parque de Atracciones) 테마파크'에서 롤러코스터 2대가 부딪혀 부상자 33명 중 27명이 병원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부상(minor injuries)을 입었다고 밝혔다.

카르멘 카마초 대변인은 부상자들은 대부분 목과 등, 위장의 고통을 호소했으며, 이들 중 부상정도가 심한 이들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테마파크측은 현지 통신사인 유료과 프레스측에 사고 롤러 코스터가 이날 오전 일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 선전 월마트서 흥기 난동으로 11명 사상

중국 광둥성 선전시 한 월마트에서 16일 저녁 한 30대 남성이 벌인 무차별 흥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17일 현지 경찰 당국은 전날 오후 8시55분께 선전시 바오안(寶安)구 월마트에서 30대 장(蔣)씨가 사람들을 향해 흥기를 마구 휘둘러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고,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의 잠정 조사 결과, 충칭시 출신의 장씨는 무직 상태로,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장씨 가족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범행 동기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장씨에 대한 정신질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美 애리조나주 홍수로 사망 9명 1명 실종

15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가 발생한 미 애리조나주 톤토국립수목원에서 9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실종자는 1명으로 줄었다고 미 당국이 16일 밝혔다.

길라 카운티의 데이비드 호닝 보안관은 희생자들은 대부분 피닉스와 플래그스태프에서 온 가족과 친구들 14명으로 구성된 한 그룹 소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일정으로 톤토국립수목원 내 인기가 높은 콜드 스프링스를 찾았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번을 당했다.

콜드 스프링스는 공인된 수영 장소는 아니지만 가로 세로 각 6m에 수심이 깊고 인근에 폭포까지 있어 수영 장소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하이킹을 통해 여러 경로로 접근이 가능하다.

숨진 9명은 성인 4명과 어린이 5명이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60살 여성이었고 가장 어린 아이는 2살 여아였다.

당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13살 소년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조됐다. 홍수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가던 실종자들은 다행히 나무가지 등을 붙잡고 매달려 있다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사람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칠레 산티아고에 46년만에 최대 40cm 폭설

칠레의 산티아고에 이번 주말 수 십년 만에 최대의 폭설이 내려 전기가 끊기는 정전 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깊이 쌓인 눈길에 발이 묶이는 등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거대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면서 모처럼의 겨울 폭설을 즐기고 있다.

칠레 국가비상본부는 칠레 15개 지역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15일 폭우와 심한 뇌우, 해일, 폭설 등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다며 기상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산티아고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십만명이 정전 사태로 고통을 받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40cm가 넘는 폭설로 발이 묶인 상태라고 이 당국은 밝혔다.

14일부터 계속된 폭설로 깊이 눈에 덮인 산티아고 주민들은 16일 밤까지도 정전 사태가 복구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안드레스 레볼레도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공급이 17일까지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티아고 시내에서는 한 노동자가 일하던 중 눈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사망했다.

칠레 기상청은 이번 폭설이 46년만에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터널 걸어가는 밀양 할머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1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북북면 밀양연꽃단지의 박터널에 주렁주렁 매달린 긴박과 조롱박이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관리자도 공범 입건' 인명피해 참극 버스업체도 형사처벌

최근 버스 대형 참사 운전자 구속·업체 과징금

경찰이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 버스의 업체 관리자로 관리 부실이 판정되면 공범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형 인명피해를 낸 버스 운전지만 형사처벌하고, 업체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수준에서 그치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사업용자동차 관리책임자에 대한 단속·수사를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에 따른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뿐, 업체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11일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둔내터널 입구에서 시외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로 운전자는

구속기소됐으나, 버스업체는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또 지난해 11월6일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끼여든 차량을 피하다가 4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됐지만 업체는 행정처분만 받았다.

경찰은 앞으로 사업용자동차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업체의 휴식시간 준수 및 차량점검의 적절 여부 등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범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업체는 안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휴식시간 부여 ▲안전교육 실시 ▲차량점검 ▲타이어 관리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불량 상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업체에 대한 단속은 오는 9월 1일까지 이뤄지며, 이 기간에 중대

사고 등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업체가 주 대상이다.

경찰이 규정한 중대 사고 유형은 ▲사망자 2명 이상 ▲중상자 5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난폭·보복운전 및 11대 중과실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사고 등이다.

현재 경찰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강천터널 인근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의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버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정밀 감정 의뢰했고, 압수한 자료 등을 통해 운전자들의 휴식시간이 적절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버스 업체의 관리·감독 불이행과 사고의 연관성이 명백하면 도로교통법상 고공주 등의 의무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공범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영장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도 입건할 방침이다.

뉴스스

전남개발공사 F1경주장

인근 부동산 매입 감사

감사원이 전남개발공사의 영암 F1경주장 인근 호텔 등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지난해 7월 영암 F1경주장 인근에 들어선 5층 규모 호텔 3동과 땅 등을 45억원에 사들였다.

수차례 전남도의 요청에 따라 전남개발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 F1 경주장 건설때부터 소음 등 업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J프로젝트(서남해관광레저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건물매각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발공사에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 이사회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8월 정관에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과 경영여건상 호텔매입 부적합 등의 의견을 내세워 안전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세 번째 이사회에서 전남도 요청을 원안 의결했고 지난해 매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전남도의 강권에 못이겨 애물단지를 떠안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 주목해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그동안 전남도와 개발공사 관련자를 불러 정책결과와 매입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매입이 고질적 민원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졌고 매입한 건물과 땅이 살아 있는 점 등을 소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